

# 복구 '예산 1조원 시대'... 5년 연속 쾌거

##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편익 증점 광주서 유일...5년 연속 예산 1조

광주 복구는 예산 1조원을 돌파하며 '광주 자치구 예산 1조 시대'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복구는 본예산 대비 909억원 증액(9.28%)된 '1조 713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복구의희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4일 확정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목적 재원 편성 등 주민 편익 제고를 위한 구정 주요 현안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복구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1조 원대 규모 살림을 꾸리며 지역발전엔 필요한 재정 동력을 마련했다.

중점 주요 사업은 도시 환경정비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분야에 △두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14억원 △용봉동·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10억원 △본촌동 오수

중계 펌프장 약취 저감 6억원 △매곡동 하수암거 보수 5억원 등이다.

녹색 스마트도시 조성 분야로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12억 5000만원 △경로당 친환경 리모델링 10억 6400만원 △드론 ICT 기반 산불관리 플랫폼 구축 8억 7000만원 △평두메습지 보전관리 37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청년 도전 지원 13억 7200만원 △최중증 발달 장애인 지원 7억 5100만 원 등이 반영됐

다. 이외에도 △전 구민 마음 투자 지원 4억 4500만원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1억 80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억 7000만원 △독서프로그램 운영 5100만원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분야 예산이 증액됐다.

문인 복구정장은 "추경예산이 확정된 만큼 지역 현안 해결을 최우선 가치로 주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 제6회 푸른온리(ON리)마켓 동구, 15일 계림동 푸른길시작마을

광주 동구는 오는 6월15일 오후 2시부터 푸른길시작마을 새뜰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계림동 푸른길시작마을 축제 '제6회 푸른온리(ON리)마켓'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출시될 마을 굿즈 팝업 스토어 개소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푸른길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온리(ON리)랜드', 마을 주민과 광주 청년 사업가들이 체험, 먹거리를 선보이는 '같이 ON마켓'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마을의 활력을 찾아줄 광주 청년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펼치는 '푸른RE(里)콘서트·버스킹' 공연과 푸른길시작마을 '주민 제안 공모 프로젝트 성과공유 전시' 등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마을 캐릭터 '푸르·마을이·시작이'와 함께하는 SNS 이벤트, 보물찾기 스탬프 이벤트 푸르를 찾아라!, 경품추첨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푸른길시작마을 새뜰사업 현장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민섭 기자

## 배달음식점 주방 청소 무상 지원 남구, 내달 7일까지 20곳 모집

남구는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배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보이는 안심주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6일 남구는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오는 6월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이는 안심주방 지원사업은 이 사업에 참여한 배달 전문음식점의 주방과 냉장고 등을 청소한 뒤 주방 사진을 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홈페이지와 연동하는 QR코드를 이용해 업소의 홍보 물품을 제작해 배부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 배달 전문음식점 가운데 위생 관리 후 개선된 주방 사진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업소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되며 참여 신청서는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팩스(062-607-4405), 담당자 이메일(pmh980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정성아 기자

## 전남대 후문 상권 활성화 '맞선' 복귀, 상권 수요 확대 등 협력 구축

광주 복구는 전남대 후문 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복구는 지난 24일 전남대 후문 상인회와 소상공인진흥공단 광주북부센터, 전남대 총학생회가 '전남대 후문 상권 활성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대 후문 상권은 대외 국내 경기 불황으로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 상권 위축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돼 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력과 예산 지원 △상점가 이용의 날 지정 △전남대 재학생 혜택 제공 등이다. 정성현 기자

## 군소음 피해보상금 86억원 지급 서구, 주민 2만5581명 대상

광주 서구는 주민 2만5581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약 86억 원(평균 29만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등 광주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보상기간은 군소음보상법(약칭)이 최초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의 37개월이며, 소음대책지역 1·2·3종에 따라 월 최대 3~6만 원을 보상받는다.

보상금 결정통보서는 오는 31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보상금은 8월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승빌딩 5층)에 이의신청서와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강주비 기자



## 독거 어르신 생신 잔치 광산구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광주 광산구가 운영하는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4일 지역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The(더)행복한day(데이)! 독거 어르신 생신 잔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LG이노텍 광주사업장 임직원들과의 협력으로 진행, 50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했다.

어르신들을 위해 풍성한 생신상을 제공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직접 케이크에 불을 붙이는 점화식도 마련돼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한 기능성 배가가 선물로 전달됐다. 또한 거동이 어려워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LG이노텍 광주사업장 임직원과 이현숙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관계가 직접 세대를 방문해 축하 인사와 선물을 전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현숙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장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좀처럼 돌아보겠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광주 남구 제2기 아동구정참여단이 지난 24일 오후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섰다. 광주 남구 제공

## 남구, 2기 아동구정참여단 '정책 발굴' 본격화

### 아동 눈높이 맞춘 사업 발굴 기대

광주 남구 관내 초·중·고교 학생으로 구성된 구정참여단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시동을 걸었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제2기 아동구정참여단 발대식이 지난 24일 오후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발대식에는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구정참여단으로 활동하는 초·중·고교생 37명,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관내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남구에서 지난달 실시한 공개 모집과 학교·기관 추천을 통해 선발된 인원으로, 1년간 구정에 참여

하면서 아동 관련 정책 제안을 비롯해 각종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게 된다.

남구는 아동구정참여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 정책 관련 6개의 분임조를 편성, 조별 수시 모임과 연간 2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 현안과 아동 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분임조는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 환경 △가정생활로 구성되며, 조별 인원은 7명 이내로 꾸려진다.

제2기 아동구정참여단의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발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구는 지난해 제1기 아동구정참여단 운영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여가 공간 확충 등의 의제를 발굴했으며, 선정 의제를 바탕으로 '안전한 남구랜드'와 '노담 구역 확대', '야! 너무 할 수 있어 체험하면!' 등 6가지 정책 사업 제안서를 관련 부서로 전달했다.

현재 남구는 부서 검토를 거쳐 참여단의 정책 제안을 구정에 반영, 안전한 놀이 시설 조성을 위한 자전거 및 킥보드 전용도로 확대와 통학로 금연거리 추가 지정 및 금연 구역 확대, 다양한 진로를 체험하는 창의 남구학교와 꿈·끼·창의력을 키우는 남구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아동 구정 참여단의 의견을 정책에 다양하게 반영해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 광산구 월곡동, 선·이주민 선도마을로 탈바꿈

### 행안부 로컬브랜딩 지원사업 선정

광주 광산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특색을 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산구는 가장 많은 외국인 거주하고, 일제 강점기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로 강제 이주됐다 돌아온 고려인 마을이 있



는 월곡동의 자원을 활용해 공모했다. 이른바 '웰컴투 월곡동'으로 선·이주민 누구나 환영받고 함께 아름다운 동고동

락의 마을을 만든다는 것이다.

구는 확보한 3억 원의 특별교부세로 세계음식문화거리 조성하고 글로벌 달빛장터와 세계시민 언어센터 운영 등 선·이주민이 동반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가 가진 국제도시로서의 잠재력을 펼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월곡동을 특색있고 문화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상생 선도마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